



베스트 프로그램

산재장애인의 세상 속으로

산재장애인 또는 산재장애자라는 표현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듣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잘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하여 '장애'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라는 표현은 산재 교통사고 등 보험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재장애인은 산업연장에서 가 족경계를 위해 열심이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 1급~14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로 정의되어 진다.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적응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받아 시행**

충주지역을 포함한 충북 북부지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장해인이 해마다 약 200명 정도씩 증가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재장해인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회 및 직장에서 이탈된 산재장해인들은 장애로 인한 고통과 사회로부터 받은 좌절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장해인을 위해 충북장애인복지관(김범석 관장)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응훈련으로는 정서지원 및 여가생활지원을 위한 집단심리상담과 야외나들이, 단전호흡, 론볼링, 영화관람, 성취프로그램, 창업특강, 근로복지공단 전문강의 등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차별 기획프로그램으로 산재장해인 캠프와 국토순례를 실시하여 극기체험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03년 가을에 처음 실시한 국토순례에서는 땅끝마을이 위치한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진도대교를 거쳐 남해안 일대 도보행진을 지역경찰의 안전지위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튿날에는 당시 핵폐기물 반대시위로 한동안 쟁점이 되었던 변산반도에서 도보순례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2004년부터는 직장복귀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교육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을 통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사무능력 및 인터넷활용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충북장애인복지관은 2003년부터 2년 연속 근로복지공단 사업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근로복지공단 표창패를 받는 등 산재장해인들과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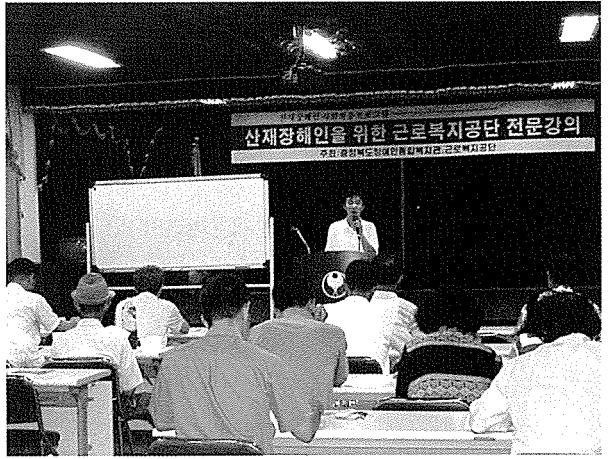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산재장해인의 가치관 변화와 자신감 회복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년2회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회차별 20명의 산재장해인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3년은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산재장해인의 직업 전 적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산재장해인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친 신체부위나 그 장애정도가 다양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실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업재해로 인해 직장 및 사회에서 이탈되어 힘들어하는 산재장해인 중에는 우울증 및 장애에 대한 고통으로 일상생활 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재장해인들이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서지원 및 여가활동을 통해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반감이 많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장



▲ 2003년 강화도 국토순례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공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하는 모습




▲ 산재장애인에 대한 집단심리상담과 근로복지공단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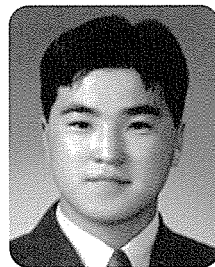
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어 좋았다고 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하는 산재 1급의 참가자 한분이 하신 말이 기억난다. “산재장애인은 월남참전용사처럼 사회가 대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월남참전용사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했듯이 산재장애인도 나라의 경제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 그에 대한 지원이나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록 중증장애를 입어 산재장애인이 되었지만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라는 긍지를 가지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 직장복귀를 도전하였지만 산재장애로 인해 번번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한 번 더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복귀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장애인 취업박람회 및 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통해 직장복귀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특강을 받고, 창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복지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학원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및 과정수료 후 다시 직장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전국에서 산재노동자협회 및 복지관 등에서 산재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수행기관에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산재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다양하여 집단프로그램으로 실시되기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홍보 및 장애에 따른 제약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재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함께 따르지 못해 참가자들의 신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북장애인복지관과 같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산업재해를 입기 전에는 전문기술을 가졌었지만 재해 이후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산재장애인이 많았는데,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족경제는 누가 책임지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산재장애인이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05년에도 총북장애인복지관에서 산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장복귀와 정서적 안정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산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최 병 근 _ 총북도장애인중합복지관